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3, pp. 301-310,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3.301

# 노인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합연구-우울의 매개효과

구전경[1], 송인자[2*]
[1]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 석사, [2]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Stress on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s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Jeun-Kyung Ku[1], In-Ja Song[2*]
[1]Master,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융합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시 65세 이상 노인 166명, 연구기간은 2018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및 Sobel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단계에서 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beta$=0.533, p<.001),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beta$=0.497, p<.001),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beta$=0.389, p<.001)와 매개변수 우울($\beta$=0.203, p=.011)이 유의한 예측 요인이었다. 변수의 설명력은 스트레스만 있는 경우 24.3%였고, 스트레스에 우울 동반 시 26.8%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14).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 융합, 우울, 노인, 매개, 스트레스, 자살

**Abstract** A Convergence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stress on Suicidal ideation and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The study were 166 elderly's over 65 years at G city and period was from August 29 to September 9, 2018. Data were analyzed PASW 18.0 program. As a result, str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in stage 1, str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uicide ideation in stage 2, stress and depression of parameter were significant predictors in stage 3.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two variables was 24.3% in stress, 26.8% for stress accompanied with depression, an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effect of stress on suicide ideation. Based on this study, it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reducing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and study is needed to develop suicide prevention programs.

**Key Words :** Convergence, Depression, Elderly's, Mediating, Stress, Suicidal Ideation

*This is some excerpt from the first author's master thesis.
*Corresponding Author : In Ja Song(na1004nr@hanmail.net)
Received November 28, 2019 Revised February 25, 2020
Accepted March 20, 2020 Published March 28,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이 2005년에는 여성 81.6세, 남성 74.9세였고, 2017년에는 여성 85.7세, 남성 79.7세였으며, 2035년에는 여성 88.5세, 남성이 83.7세로 평균 80세 이상으로 예상하였다[1]. 고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 중 14%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되는 사회를 말한다[2].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2017년 13.8%, 2018년 14.3%, 2025년 20%, 2045년 35%로 추정하여 초 고령화 사회를 예측하였다[1]. 이에 생명 연장과 건강하고 바람직한 노년기를 지낼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3]. 최근 인구 변화로 인해 건강 악화, 경제적 빈곤 및 고독 등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 하였을 뿐 아니라, 노인 자살까지 가중되어 고령화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4]. 또한 노화과정에서 건강수준은 자살생각에 주요한 영향요인이며[5], 노후 준비[6], 가난, 질병 및 외로움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4].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60대 이상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50대 30.8명, 60대 30.2명으로 50대에서 자살률이 약간 더 높았으며, 이외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자살률이 높았다[7]. 자살시도를 하는 노인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가족학대나 무관심으로 인해 삶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거나, 힘든 상황을 타인에게 표현하지 못하면 자살생각을 하기도 하였으며[8], 이로인해 자살생각이 자살행위로 연결되는 요인이 된다[9].

스트레스는 적응이 어려운 환경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상태로 생애 주기에서 경험하는 일반적 현상이며,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10],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하다[11]. 노화로 인해 노인들은 신체적 문제, 은퇴나 실직으로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문제, 사회적 역할상실, 배우자나 친구 사망으로 인한 고독감 등의 다양한 정서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12]. 이는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한 문제가 다른 문제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13]. 노인의 스트레스는 다른 생애 주기와 달리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살생각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며[14], 게다가 정신적 문제까지 발생하면 자살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다[15].

우울은 스트레스 적응에 대한 신체상 변화와 무력함, 걱정, 고독함, 무가치함 등의 정서적 상태이며[16], 마음이 답답하여 활기가 없거나 걱정스러움, 가벼운 슬픔을 느끼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17]. 우울 진료비율을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0대였으며, 경제력 상실, 다양한 질환, 사별 등 뿐 아니라 독거, 가족갈등 등이 우울의 원인이었다[18]. 이외에도 평균 기대수명 연장과 의료혜택의 질 향상과 더불어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우울증 환자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19]. 노인에게 외로움, 우울감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자살생각도 증가하였으며, 이 중 우울이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20]. 또한 신체 상태가 악화되면 우울수준이 높아져 자살생각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14], 경제적 요인, 건강 요인 및 사회적 소외 등이 자살생각의 80%를 차지하며, 이는 우울과 관련되었다[21]. 노인의 자살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이 우울과 스트레스로[22], 우울은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된다[23]. 게다가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24], 자살생각을 조기 발견하여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25].

노인의 자살생각 관련 선행연구는 우울[19,26], 사회적 지원체계, 지역사회 체계[27,28], 가족 탄력성[29], 자살시도[30], 주관적 건강상태의 인식[31],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31], 스트레스와 우울[32]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구 증가와 자살률의 증가 추세를 보이며, 자살생각은 우울이 80% 관련성을 보였다[21].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대상 우울의 매개효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5,33].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G 시에 거주 중인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연구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하여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자를 편의표출 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중간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을 고려하여 표본 수를 산출 결과 대상자 수는 총 147명이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76부 설문지를 배포 및 수거하였고, 불충분한 답변을 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여 총 16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강인[34]의 도구를 이영자[35]가 수정· 보완하고, 윤정선[36]이 재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받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많이 받는다' 5점까지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강인[34]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9, 이영자[35]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 윤정선[36]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4,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1이었다.

#### 2.3.2 우울

우울은 미국정신보건연구원(NIMH)의 CES-D (the Center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ession Scale) 척도를 조맹제와 김계희[37]가 수정·보완하고 윤정선[36]이 재 수정 도구를 김춘지[38]가 추가로 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윤정선[36]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6, 김춘지[38]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이었다.

#### 2.3.3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Beck[39]의 자살생각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를 김창진과 황진수[40]가 수정·보완한 도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가족친지부담 3문항, 무가치성과 무능력 4문항, 무료감 3문항, 고통 4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최저 14점에서 최고 7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창진과 황진수[40]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9,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4이었다.

###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G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은 후 G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IRB No:.1041485-201807-HR-001-21).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익명성 보장과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소정의 답례품을 설문지 작성 후 제공하였다.

### 2.5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PASW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절차를 통해서 Stepwise Multiple regression과 Sobel test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성 92명(55.4%), 여성 74명(44.6%)이었고, 연령은 75~84세 91명(54.8%), 학력은 고졸 이상 64명(38.6%)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부부 생존) 109명(65.7%), 동거유형은 부부만 거주 89명(53.6%)가 가장 많았다. 종교는 '있다' 92명(55.4%), '없다' 74명(44.6%)이었고, 건강인식은 '건강하다'가 69명(41.6%)로 가장 많았으며, 만성질환 유·무는 각각 83명(50%)였다. 월수입은 50만원 이하 68명(41%), 생활비는 고정수입원(퇴직금, 연금, 기타재산소득) 104명(62.7%), 경제인식은 '좋은 편이다'가 66명(39.8%)이 가장 많았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66)

| Variables | Categories | N(%) |
|---|---|---|
| Gender | Male | 92(55.4) |
| | Female | 74(44.6) |
| Age | 65-74 | 55(33.1) |
| | 75-85 | 91(54.8) |
| | 85〈 | 20(12.0) |
| Education | 〈Elementary | 52(31.3) |
| | Middle | 50(30.1) |
| | High School〈 | 64(38.6) |
| Marital Status | Married | 109(65.7) |
| | Single Divorce Bereave | 57(34.3) |
| Live Together Family | Single | 40(24.1) |
| | With Spouse | 89(53.6) |
| | Etc | 37(22.3) |
| Religion | Yes | 92(55.4) |
| | No | 74(44.6) |
| Health | Good | 69(41.6) |
| | Normal | 44(26.5) |
| | Poor | 53(31.9) |
| Chronic Disease | Yes | 83(50.0) |
| | No | 83(50.0) |
| Monthly Income/ (won) | 10-50 | 68(41.0) |
| | 51-99 | 63(8.0) |
| | 100〈 | 35(21.0) |
| Living expenses Source | Worker | 33(19.9) |
| | Fixed income | 104(62.7) |
| | Support | 29(17.5) |
| Economic Cognition | Good | 66(39.8) |
| | Normal | 48(28.9) |
| | Poor | 52(31.3) |

###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정도의 차이는 연령(F=11.298, p〈.001), 학력(F=10.477, p〈.001), 결혼상태(F=-5.031, p〈.001), 동거유형(F=16.626, p〈.001), 건강상태(F=6.77 6, p=.001), 월 수입(F=5.196, p〈.01), 경제인식(F=14.196,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살생각은 연령에서는 85세 이상이 다른 군보다, 학력은 초졸 이하가 다른 군보다 자살생각 수준이 높았다. 결혼상태는 기혼 외 군(미혼, 사별, 별거 등)이 다른군보다, 동거유형에서는 독거와 기타(시설, 친척 등)군이 다른 군에 비해 자살생각 수준이 높았다. 또한 건강인식은 '건강하지 않다'군이 다른 군보다, 월수입은 50만원 이하군이 다른 군보다, 경제인식은 '어렵다'군이 다른 군에 비해 자살생각 수준이 높았다. Table 2

**Table 2. Levels of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6*)

| Variables | Categories | M±SD | t or F(*p*) |
|---|---|---|---|
| Gender | Male | 29.43±10.41 | -0.892(.374) |
| | Female | 31.01±12.03 | |
| Age | 65-74 | 26.55±10.92 | 11.298(.000)** a,b〈c |
| | 75-85 | 30.23±10.08 | |
| | 85〈 | 39.60±11.38 | |
| Education | 〈Elementary | 35.29±10.55 | 10.477(.000)** a〉b,c |
| | Middle | 29.72±12.17 | |
| | High School〈 | 26.28± 9.15 | |
| Marital Status | Married | 27.01± 9.40 | -5.031(.000)** |
| | Single Divorce Bereave | 36.12±11.87 | |
| Live Together Family | Single | 37.10±11.51 | 16.626(.000)** b〈a,c |
| | With Spouse | 26.18± 8.96 | |
| | Etc | 32.14±11.58 | |
| Religion | Yes | 30.93±11.86 | 1.025(.307) |
| | No | 29.15±10.21 | |
| Health | Good | 27.67±10.77 | 6.779(.001)** a,b〈c |
| | Normal | 28.64±10.17 | |
| | Poor | 34.60±11.29 | |
| Chronic Disease | Yes | 31.49±11.78 | 1.572(.118) |
| | No | 28.78±10.40 | |
| Monthly Income/ (won) | 10-50 | 33.53±11.91 | 5.196(.007)* a〉b,c |
| | 51-99 | 28.02±10.73 | |
| | 100〈 | 27.91± 8.60 | |
| Living expenses Source | Worker | 27.85±10.79 | 2.011(.137) |
| | Fixed income | 29.94±11.25 | |
| | Support | 33.45±10.84 | |
| Economic Cognition | Good | 25.06± 9.49 | 14.196(.000)** c〉a,b |
| | Normal | 31.94±10.50 | |
| | Poor | 34.92±11.26 | |

*P〈.01, **P〈.001

### 3.3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수준

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39.19±12.71점, 평균평점은 2.31±0.75점이었고, 우울 수준은 평균 55.17±11.63점, 평균평점은 2.76±0.58점이었다. 또한 자살생각 수준은 평균 30.14±11.16점, 평균평점은 2.15±0.80점이었다. Table 3

**Table 3. Level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N=166*)

| Variables | Min~Max | M±SD | M±SD |
|---|---|---|---|
| Stress | 17~85 | 39.19±12.71 | 2.31±0.75 |
| Depression | 20~100 | 55.17±11.63 | 2.76±0.58 |
| Suicidal ideation | 14~70 | 30.14±11.16 | 2.15±0.80 |

### 3.4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스트레스(r=.497, p〈.001)와 우울(r=.411, p〈.001)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스트레스도 우울(r=.533,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N=166*)

| Variables | Suicidal ideation | Stress | Depression |
|---|---|---|---|
| Suicidal Ideation | 1 | | |
| Stress | .497(〈.001) | 1 | |
| Depression | .411(〈.001) | .533(〈.001) | 1 |

### 3.5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Baron, kenny, 1986)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우울이 유의하였고(F=65.231, p〈.001), 설명력 28%로 스트레스($\beta$=.533, p〈.001)가 유의한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이 유의하였고(F=53.919, p〈.001), 설명력 24.3%로 스트레스가 유의한 독립변수($\beta$=.497, p〈.001)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이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 우울이 독립변수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31.217, p〈.001), 설명력은 26.8%였다. 이에 독립변수인 스트레스의 3단계 $\beta$값이 .389(p〈.001)로 2단계의 $\beta$값 .497(p〈.001)보다 작아 매개변수인 우울이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유의하여 우울은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

마지막으로 Sobel test결과 Z값은 2.447(p=.014)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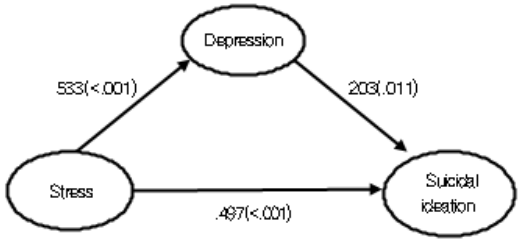


**Fig. 1.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Table 5.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N=166*)

| Step | Predictors | Variable | B | SE | $\beta$ | t | Adj.$R^2$ | F | p |
|---|---|---|---|---|---|---|---|---|---|
| 1 | Stress | Depression | .488 | .060 | .533 | 8.077 | 0.280 | 65.231 | 〈.001 |
| 2 | Stress | Suicidal ideation | .437 | .059 | .497 | 7.343 | .243 | 53.919 | 〈.001 |
| 3 | Stress | Suicidal ideation | .341 | .069 | .389 | 4.941 | .268 | 31.217 | 〈.001 |
| | Depression | | .195 | .076 | .203 | 2.580 | | | .011 |
| Sobel test Z=2.447, *p*=.014 | | | | | | | | | |

## 4.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실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평균평점 2.30점이었다. 2.73점[36]이었고, 동일한 도구는 아니었으나, 2.51점[41]으로 본 연구보다 높았고, 2.18점[42], 2.24점[43]으로 본 연구보다 낮았으며, 2.37점[38]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 대상자가 400명 이상이었으나[36], 본 연구는 160명으로 선행연구에 비해 대상자의 특성 반영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비교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요양 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로 이들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의 대상자였으나[41],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노인 대상자로 병력이 있고 치료 중인 대상자도 있었으나, 현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어 낮은 스트레스 수준이었다고 보인다. 즉, 건강인식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 연령이 60세 이상이었으나[42], 본 연구는 65세 이상 대상으로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아 노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구가 달라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으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차이를 보였으므로 개별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은 평균평점 2.26점이었다. 2.67점[38], 동일한 도구는 아니었으나 3.24점[16]으로 본 연구결과가 낮았으며, 1.41점(Likert 4점 만점)의 결과를 보였다[24].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았고[44], 연구 대상자의 62.3%가 여성으로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38],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분포가 44.6%이어 점수 비교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 우울수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 대상은 아니었으나 대도시 거주하는 50~59세 대상 연구에서도 연령이 많을수록 우울의 차이를 보였고[24], 또한 본 연구에서도 65세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령의 차이는 있었으며, 연령이 증가에 따라 우울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나 거주지, 연령, 성별 및 Likert 척도의 차이로 점수 비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또한 일상생활 활동 장애 정도가 우울에 영향을 주므로 정기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관리 및 질병예방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성을 제시하였다[45]. 대상자들의 현 건강 인식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우울의 변화가 있으므로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면 우울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평균평점 2.15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는 아니었으나 2.04점[46], 1.26점(4점 만점)[47], 1.5점(4점 만점)으로 나타났다[4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정도의 차이에서 연령은 85세 이상이 다른 군보다, 학력은 초졸 이하가 다른 군보다, 건강 상태는 '건강하지 않다'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자살생각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결혼 상태는 기혼인 군이 기타 다른 군보다, 동거 유형은 노부부만 거주하는 경우가 다른 군에 비해 자살생각 수준이 낮았다. 월수입은 50만 원 이하 군이 다른 군보다, 경제인식은 '어렵다'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자살생각 수준이 높았으며, 이외의 특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자살생각 수준이 높아져[49,50],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고졸 이상 대상자가 대부분으로[46] 본 연구 대상자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 자살생각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가장 낮았던 초졸 이하 대상자의 자살생각이 높았던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또한 70%가 노부부만 거주하는 형태를 보였고, 경제수준이 보통 이상이 71.8%로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는데[48], 이는 노부부가 사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자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체가 노인들에게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생활비에 대해 55.8%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나 Llkert 척도가 다르므로(4점)[47], 본 연구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노인은 경제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없게 되므로 노년기 이전의 생애 주기에 단계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후준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노인이 객관적, 주관적 건강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군이 자살생각 수준이 높았고[51],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낮게 인식 할수록 자살생각이나 충동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52],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노화과정에서 건강악화는 건강관리를 위한 경제적 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이를 위한 관리가 더욱 소홀히 하게 되고,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노동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한 노인을 위한 질병 지원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가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1].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없는 무연고로, 홀로 기거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도별 무연고 시신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 사망자가 2013년 458명, 2017년 835명으로 약 2배가량 상승하였다[53]. 노인들은 자녀와의 단절에 대한 힘들어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경향이 컸으며, 자살 의도나 경험을 자연스럽게 노출되므로 가족이나 지역사회 관계망을 이용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54]. 최근 독거노인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인적자원의 지지와 더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살생각은 스트레스와 우울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였고, 스트레스도 우울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우울이 심해질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게 되며, 스트레스와 우울도 상호 간에 영향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졌고[55],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였으며[43], 또한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이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 군에 비해 '많이 느낀다' 군이 4.2배, '대단히 느낀다' 군은 17.2배 높아진 결과를 보여[56],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노인의 우울은 자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32],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이 나타나거나,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지면 우울과 자살생각도 높아져 각 변수 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33]. 게다가 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주었고,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생각 수준을 높였다[57]. 노인 우울은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생각을 더욱 하게 되며[58], 또한 노인자살은 스트레스와 우울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59]. 그러므로 스트레스와 우울 감소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자살생각이 감소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24.3%,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26.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우울은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노인 대상으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울을 매개효과 연구가 많지 않아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15,33]. 그러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고, 우울은 자살생각에 매개효과를 보였으며[38], 우울이 자살생각에 매개효과 뿐 아니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26],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노인의 차별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도 우울이 심해질수록 자살생각이 높았고[60], 특히 독거노인에서 우울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61]. 노인 우울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56],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이기도 하다[62]. 또한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와 더불어 만성질환에 쉽게 노출이 되고 배우자 부재와 경제적 지지약화가 자살생각 수준을 높아지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스트레스 완화와 우울 감소를 통해 자살생각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노인기는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특히 건강에 대한 변화와 관심이 증가하며 생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이다.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 2016년 6.7%, 2018년 7.2%으로 전남지역이 13.5%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는 3.8%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1]. 또한 노년기의 다양한 변화를 노화과정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노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개별화한 지지체계가 필요하다. 즉 노인 스스로도 노화와 질병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여생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적으로 인적·경제적 지지체계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된다고 하겠다.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므로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이를 토대로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노인의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고 26.8% 설명력을 보였다. 노인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으로 자살생각 감소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국한된 조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대상자로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둘째,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1] Korea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 (2019). *2018 Elder statistics* [Online]. http://kosis.kr/search/search.do

[2] E. J. Yeun. (2018). *Gerontological Nursing*, Seoul : Sumoomsa Publishing.

[3] E. J. Park. (2018). *The Effects of art therapy using a pictorial design on the depression and communication of elderly person with geriatric disease,* Master's Theses. Silla University, Busan.

[4] H. N. Kwon. (2012). An ethical analysis of the elderly's suicide in aging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2(2)*, 1-20.

[5] S. H. Kim & Y. H. Choi. (2007). The Influence of Physical Health on Suicidal Ideation in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7(4),* 775-788.

[6] J. W. Lee. (2017).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medical service for Elderly People towards Super-aged Society.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25(4),* 181-203.

[7]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2019). *Suicide Prevention Book* [Online]. www.spckorea.or.kr

[8] M. Y. Lim & Y. J. Kim. (2011). A Phenomenological Study of Suicide Attempts in El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1),* 61-71.

[9] H. S. Kim. (2002). A Study on Epistemology of Korean Elder's Suicidal Thought.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2(1),* 159-182.

[10] H. S. Kim & B. S. Kim. (2007). A Path Analysis on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3),* 801-818.

[11] S. C. Park. (2005).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of Elder's.* Master's These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 S. I. Jeong & B. K. Kim. (2016). A Study on the Solutions of the Elderly Problems in Terms of Social *Issuest.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 109-119.

[13] M. K. Jung & K. M. Lee. (2010). A Path Analysis of Stress, Depression, Optimism, and Resilience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9(3),* 79-93.

[14] J. M. Choi.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Elderly : Focus on the Moderation Effect of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4,* 233-253.

[15] M. Y. Lee. (2009). *The Effects of the Elderly's Stress on Suicidal Ideation - Focusing on Depression as a Mediator, and Social Support and Stress Coping Strategy as Moderators.* Doctor's dissertation. Cheongju University, Chungbuk.

[16] J. Battle. (18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 42,* 745-746.

[17] I. S. Um. (2012). Study on the Effect of the Elderly's Liv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2(1),* 73-90.

[18]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8). *2017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vice,* Statistics Korea [Online]. https://www.nhis.or.kr/wbdya/wbdyaList.xx?query=%EC%9A%B0%EC%9A%B8

[19] K. S. Uo. (2017).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on Depressive Symptoms.* Master's Thes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20] J. N. Park. (2014). *Effect of loneliness, life stress and depression on the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focusing on the adjustment effect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Doctor's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Seoul.

[21] K. Y. Jeong. (2016). *The Predictive Effects of Geriatric Counselling on the Depression Reduction and the Suicide Prevention.* Doctor's dissertation. Seoul Venture University, Seoul.

[22] S. H. Lee. (2012). *A path analysis of stress,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older adults.* Master's Thes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23] Y. M. Park, G. D. Je & B. G. Kim. (2012). The Study on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 Focused on Participation in Suicide Prevention Program.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8(3),* 439-464.

[24] I. Y. Jeong & C. Y. Kim. (2015).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upport and the Stress on the Suicide Ideation of the Middle-aged in Seoul: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Depression. *Seoul Studies, 16(1),* 149-168.

[25] J. D. Kwon, Y. J. Kim & T. Y. Um. (2011). Suicidal Ideation among Older adults Who Live Alone with care services : a Moderating Effect of Alcohol Drink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vious Suicidal Attempts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1,* 297-320.

[26] E. H. Jang & S. I. Nam. (2015). The Effect of the Four

Major Difficulties on Suicide Ideation among the Elderly-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69,* 123-151.

[27] H. Y. Lee & S. H. Cho. (2012). Factor Affecting the Suicidal Ideation of Elderly in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3,* 191-216. DOI : 10.15300/jcw.2012.12.43.19

[28] K. H. Jeong & A. R. Ko. (2016).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of the Young-old and Old-old Elderly in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Individual, Family, and Community System Factor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53,* 45-78.

[29] Y. K. Lee & M. H. Jung. (2013). The Effect of Family Resilience on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 61,* 111-134. DOI : 10.21194/kjgsw..61.201309.111

[30] J. S. Kim & S. J. Lee. (2014). Factors Affecting Suicide Attempts of the Elderly with Suicide Ideation: Secondary Data Analysis of KNHANE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4(1), 73-85.

[31] Y. O. Lim & H. S. Yoon. (2007). Process of Old Age Stress Leading to Suicidal Ideation : Focus on Mediator of Social Support, Mastery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2(1),* 123-149.

[32] M. S. Lee. (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Death Anxie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f Elder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49,* 241-265.

[33] I. K. Seo & H. C. Cho. (2013).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 A Comparative Study on People Who Live Alone and Those who Live with Family. *Korea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1,* 135-162.

[34] I. Kang. (1990). *Study on the Mid-Life Family Stress and Family Coping Strategies.* Master's Theses. Ewha University, Seoul.

[35] Y. J. Lee & T. H. Kim. (1999). A Study on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Stress of the Elderly who lives alon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9(3),* 79-93.

[36] J. S. Yoon. (2014). *The Effects of the Elderly's Life Stress on Depression-Focusing on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tress-coping strategy.* Doctor's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Daegu.

[37] M. J. Cho & K. H Kim. (1993).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Ⅲ-R Major Depression. *Psychiatry Investigation, 32(3),* 381-399.

[38] C. J. Kim. (2017). *The Effects of the Elderly's Life Stress on Suicidal Ideation-Mediated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Docto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39] A. T. Beck, A. D. Weissman & L. Trexler.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Consulting Psychology, 42,* 867-865.

[40] C. J. Kim & J. S. Hwang.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Senile Disease and Depression on the Seniors' Ideation of Suicid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3),* 425-442.

[41] M. S. Yang. (2011). *The effect of suicide impulse with stress and depression of old people who living nursing home-The counter program of stress removing and control.* Master's Theses. Kyonggi University, Kyonggi.

[42] H. J. Kang. (2012). *The Effects of Elders' Stress on Successful Aging-Moderating Effects of Selection, Optimization, Compensation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Doctor's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Kyonggi.

[43] Y. J. Song, J. H. Son & H. U. Nam. (2013). The Effect of Elderly`s Stress on the Suicidal Ideation- Focused on the Mediator Effect of the Stress Copying Typ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37,* 71-92.

[44] S. Y. Park & C. K. Lee. (2016). The Socioeconomic Factors of Older Generations` Depression.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18(1),* 3-27.

[45] J. W. Lee. (2016). Converged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of Community Dwelling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5), 237-246. DOI : 10.15207/JKCS.2016.7.5.237

[46] D. N. Lee & N. Y. Kim. (2018) The Effects of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Suicidal Ideation of Older Adul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2),* 997-1009. DOI : 10.22143/HSS21.9.2.79

[47] K. S. Park, Y. H. Kim, K. W. Lee, Y. S. Lyu & H. Y. Jeong. (2014). Factors Affecting on Suicidal Ideation in Community Dwelling Elders.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6(1),* 39-48. DOI : 10.7231/jon.2015.26.1.039

[48] S. Y. Bang. (2014). Loneliness and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Character Type in Elderl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6),* 319-327. DOI : 10.5392/JKCA.2014.14.06.319

[49] B. G. Park & S. K. Chun. (2006).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older Adults' Suicidal Ideation through the Intermediary of Depress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22,* 58-91.

[50] C. Y. Koo, J. S. Kim & J. O. Yu. (201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Elders' Suicidal Ideation : Focused on Comparison of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5(1),* 24-32.

[51] H. S. Kim. (2017). *A Study on the Affecting Factors to the Elderly's Suicidal Ideation.* Doctor's dissertation.

Sangji University, Gangwon.

[52] E. H. Lee. (2011).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for the Elderly - Focused on the Moder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15(2),* 369-392.
DOI : 10.18397/kcgr.2011.15.2.369,

[5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2018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MOHW [Online].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CONT_SEQ=343976

[54] C. S. Song, J. J. Kim, S. Y. Jung. (2019). A Convergence Study on the Adaptation Experience of in Self-help Group of Depressed Elderly with Suicidal Though.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 353-360.
DOI : 10.15207/JKCS.2019.10.1.353

[55] J. J. Choi. (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Stress of the Elderly on the Suicidal Ideation-Focusing on the Mediating Controll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Doctor's dissertation, Sungkyul University, Gyeongi.

[56] G. G. Jo. (2014).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in Older People Living Alone.* Master's Theses. Ajou University, Kyonggi.

[57] M. H. Jang & Y. H. Kim. (2005). The Relationship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4(1),* 33-42.

[58] H. Y. Jung & S. H. Roh. (2007).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elderly suicidal ideation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tress on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7(4),* 789-805.

[59] H. G. Lee. (2012). *A Study on Current Trend and Factors Affecting the Suicidal Thought of Korean Aged Population.* Docto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60] H. G. Shin. (2012). Effects of the elderly's ageism experience on suicidal thought and mediating effect of hopeless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6,* 191-216.

[61] Y. D. Song, J. A. Son & M. Park. (2010). An analysis of Eco-systematic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who are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0(2),* 643-660.

[62] K. T. Kim, S. S. Choi, M. J. Park, S. H. Park, S. H. Ko & H. S. Park. (2011). The Effect of Family Structures and Psycho-Social Factors on Suicidal Ideation of Senior Citizen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2,* 205-228.
DOI : 10.21194/kjgsw..52.201106.205

구 전 경(Jeun-Kyung Ku) [정회원]

· 1997년 3월 ~ 2018년 4월 : 하남성심병원 간호부 및 보험심사팀장
· 2019년 2월 :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관심분야 : 성인, 노인, 간호행정
· E-Mail : nomiku@naver.com

송 인 자(In-Ja Song) [정회원]

· 2003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학석사)
· 2012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박사)
· 2012년 4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 재난, 노인, 재활, 영양
· E-Mail : na1004nr@hanmail.net